

차이잉원(蔡英文) 집권과 兩岸 경제교류 전망*

김원곤·박정수**

▷ 目 次 ◁

- I. 서론
- II. 국민당 재집권 이후 兩岸 경제교류
- III. 최근 兩岸 경제교류의 특징
- IV. 차이잉원 집권 이후 兩岸 교류 전망
- V. 결론

I. 서론

최근 세계 경제는 블록화현상의 심화로 國益을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경제 협력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협력체는 기존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 도모를 위해 새로운 대상국을 선택하여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TPP¹⁾(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하 TPP로 칭함)를 들 수 있다. 본래 TPP는 2005년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 이 논문은 2010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金源坤, 南首爾大學校 중국학과 교수, kwonk@nsu.ac.kr

朴正守, 西南大學校 관광중국어학과 교수, joengsu@seonam.ac.kr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며, 참가국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필리핀 등 12개이다.

〈표 I-1〉 최근 국제 경제동맹의 현황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와 지역주의 확산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중국 또한 아시아 주변국과 경제협력(RCEP)²⁾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제적 연합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하 兩岸)은 2008년 국민당의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이 집권 한 이후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兩岸은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0년 6월 ECFA를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兩岸의 교류와 협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향후 兩岸의 교류와 협력강화를 논의하고, 지난 92년 합의한 '92 컨센서스'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재합의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 중국은 한 가족이라면서 친밀감을 강조했고, 마잉지우 총통도 兩岸관계 발전을 이어나가자면서 양측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으며, 향후 정상회담 정례화도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³⁾

2) RCEP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태 지역 16개국 정상들이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3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많은 관심을 보여 대외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11월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RCEP에 가입 시 한국의 실질 GDP와 후생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 성장에 1.17%~1.45%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성하, 〈TPP와 RCEP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경북대학교, 2015, 69쪽.

그러나 2016년 1월 16일 거행된 대선과 총선에서 집권당이던 국민당이 참패하고 야당이었던 民進黨의 차이잉원이 집권하게 되면서 향후 兩岸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ECFA 체결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마잉지우가 집권했던 지난 8년 간 兩岸 경제교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民進黨의 차이잉원의 집권으로 인해 전개될 兩岸 경제교류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국민당 재집권 이후 兩岸 경제교류

1. ECFA 체결 배경

마잉지우 총통은 집권 후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兩岸關係를 구축하는 것을 정권 초기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과거 8년 동안 民進黨 정부가 실시한 대중국 정책과 다른 방향의 대중국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측면의 兩岸關係 개선은 兩岸 모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특히 대만의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었기에 마잉지우 총통은 통일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개선보다는 비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兩岸 간의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며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

兩岸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모델이 제기되었고 兩岸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지금의 ECFA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맨 처음 兩岸 간 경제협력 모델로 제시되었던 것은 대만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과 체결한 경제협력 모델인 CEPA⁴⁾라고 할 수 있다. 홍콩과 체결한 CEPA를 兩岸 간에 적용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CEPA 내용 중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는 것에 대만인들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동안에 兩岸이 갈등관계를 지속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마잉지우 총통 취임 후 중국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CEPA를 주장했지만 야당인 民進黨의 반대⁵⁾와 국민 여론

3) 《조선일보》(서울), 2015년 11월 9일(월), A8면.

4)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시장의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우선하며,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 실제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별 차이가 없음.

5) 민진당(民進黨)의 경우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대만의 일자리를 중국인들

의 악화로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하지만 마잉지우 총통은 2009년 2월 국민 여론을 수용해 ECFA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마잉지우 정권의 초기부터 핵심 사안이었던 경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타결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적 금융위기와 내수경제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대만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건네는 손을 거부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대만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이룬다면 거대한 잠재력의 중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였다. 또한 중국을 발판으로 하여 주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다는 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兩岸 간 ECFA 체결은 국제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만은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에 대만이 중국과 ECF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아세안,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여러 국가들과 무역마찰은 불가피 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 또는 진행 중인 국가라는 점에서 대만은 경제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⁶⁾

또 다른 측면의 배경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먼 훗날 홍콩 방식으로도라도 주권을 회수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대만이 희망하는 경제적인 협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였다. 중국은 대만의 주권 회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었으며, 그 前단계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親 중국화 한 후 가까운 미래에 대만통일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CFA의 체결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ECFA의 체결이 중국에게는 불리하고 대만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정치적 접근이었고 대만은 경제적인 측면을 염두에 둔 ECFA의 체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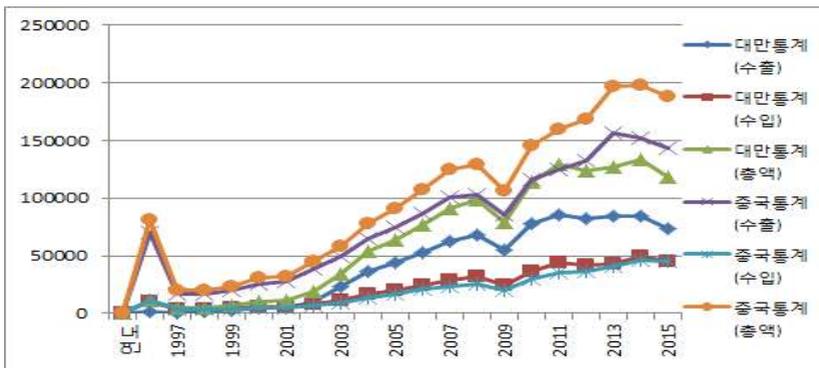
2. 최근 양안 경제교류 현황

이 잠식할 수 있고, 대만 시장이 공동화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兩岸교류의 폭과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당의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 6) 鄭다정, 박정수, <양안 관계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전략과 전망>, 《중국학논총》 제39집, 2013, 90-94쪽.

兩岸교류에서 1949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兩岸은 중국 정통성에 대해 서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대립과 투쟁을 지속해 왔다. 이 시기에 兩岸은 무력통일을 추구하였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무력 충돌한 적이 있다. 1978년 덩샤오핑 등장 이후 ‘일국양제’에 의한 평화통일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장징구어(蔣經國)는 ‘3불정책’⁷⁾을 고수하였다. 이런 관계가 개선된 것은 국민당의 마잉지우가 2008년 재집권하고 연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되었고, 중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 기간 兩岸은 해협회와 해기회 사이 여러 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총 23개의 경제협정이 체결되면서 ‘大三通’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 6월 ECFA를 체결하고 같은해 9월 발효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兩岸교류는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⁸⁾

〈그래프 II-1〉 대만의 대중국무역 변화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출처〉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 no.276

兩岸관계의 개선은 대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마잉지우 집권 이후 대만과 중국은 ECFA를 체결하였고 이후 대만은 중국무역에서 〈그래프 II-1〉에서 보듯이 점점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만 행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대만의 대중국무역의 무역 총액이 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3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

7) 3불정책: 중국의 통상, 통항, 통우(通郵)에 대해 대만은 이에 대해 불접촉(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를 실시한 정책.
 8) 김원근, 〈시진핑 체제의 출범 이후 兩岸관계에 대한 전망〉, 《중국학논총》 제44집, 2014, 3-4쪽.

다. 물론 마잉지우 집권말기와 국제경기 불황 그리고 대만 국내 불황으로 2015년도 대중국 무역지표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주춤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대만은 중국의 관계개선으로 얻는 혜택에 대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개선의 영향은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대만 전반적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 <표 II-1>에서는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GDP 성장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제의 영향을 미친 점도 있지만 ECFA 체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CFA 체결에 따른 무역증가와 兩岸 긴장완화에 따른 대만의 국가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상승하였다.⁹⁾

<표 II-1> ECFA 전·후 대만의 경제 지표

구분	2005~11년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GDP성장률(전년동기비,%)	4.45	2.06	2.33	3.77	0.75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2	-2.3	1.4	2.7	-10.9
▶ 對중국 무역비중(%)	19.6	21.3	21.6	22.3	22.7
CPI상승률(전년동기비,%)	1.39	1.93	0.79	1.20	0.14
외환보유액 (연평균,억달러)	3,138	4,031	4,168	4,189	4,260

<자료출처> : 대만 행정원 (<http://www.mac.gov.tw>) no.276를 정리함.

兩岸의 무역은 특히 200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兩岸무역 또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兩岸의 무역은 과거부터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홍콩을 경유한 간접무역이었고, 해안에서 민간인 사이의 직접교역이 이를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兩岸무역은 간접무역, 직접무역 및 소액무역 등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아래 <표II-2> 를 보면

9) 경제성과부문은 2009년 27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에는 8위로 상승하였으며, 정부효율부문은 2009년 18위에서 2011년 10위로, 기업효율부문은 2009년 22위에서 2011년 3위로 상승하였다.

2000년도 대만의 중국과의 대외무역 비중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부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으로 이루어 졌다. 2002년 이후 대만의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이후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만의 전체 무역수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II-2〉 대만의 중국대륙과 홍콩의 무역수지통계 억달러, 단위(Unit) : %

연도	대중국대륙무역수지		대홍콩 무역수지		전세계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2000	-18.37	-16.4	303.77	270.8	112.17
2001	-10.07	-5.5	266.66	145.5	183.43
2002	25.58	11.6	310.44	140.7	220.71
2003	118.72	52.6	289.51	128.2	225.90
2004	195.57	143.7	305.87	224.7	136.12
2005	235.50	148.9	319.25	201.8	158.17
2006	270.25	126.8	355.00	166.5	213.19
2007	344.01	125.4	361.54	131.8	274.25
2008	354.92	233.8	311.97	205.5	151.80
2009	298.25	101.8	283.22	96.7	293.04
2010	409.89	175.4	361.79	154.9	233.64
2011	403.63	175.4	361.79	154.9	268.19
2012	398.06	129.6	352.73	114.9	307.08
2013	391.98	110.3	377.74	106.3	355.44
2014	340.79	85.9	408.47	103.0	396.69
2015	281.43	58.5	376.62	110.0	481.24

자료출처 : 대만 행정원 (<http://www.mac.gov.tw>) no.276

2010년에 ECFA가 체결된 후 중국이 대만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과거 중계무역과 소액무역 위주에서 직접무역의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兩岸의 정경분리 정책은 兩岸 경제교류를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兩岸 회담의 경과

2008년 6월에 1차 兩岸회담으로 兩岸 간 항공운항과 중국인의 대만 관광을 허용하였고, 2008년 11월에는 중국 천윈린 해협회회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였다. 천윈린회장은 2차 회담에서도 장빙쿤 해기회 이사장을 만나 ‘大三通’을 합의했고, ‘大三通’의 실현을 위한 실무사항에도 합의하였다.¹⁰⁾

2009년 4월 제4차 회담에서는 항공 직항편 및 정기편 확대, 강력범죄와 사법처리 협의, 그리고 금융 분야 협력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회담에서는 어업 노무 및 농산물 검역관리 그리고 兩岸표준화 인증방식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II-3〉 최근 兩岸 회담 경과

시기	주요 내용
제5차	2010.06 중국·대만 ECFA 체결 합의
제6차	2010.12 의약·위생 부문 협력 합의 여행 자유화 합의
제7차	2011.10 원자력 안전 협력 협의 5대 신흥산업(LED, TFT-LCD, 무선통신, 저온물류, 전기자동차) 분야 상호협력 협의
제8차	2012.08 양안 투자 부문 협의 양안 세관 부문 협의
9차	2013.04 '아세안+3' 및 'RCEP' 등의 경제협정 대만 가입 희망 중국내 대만기업에게 동등한 대우 약속 합의
10차	2014.02 첫 장관급 회담
11차	2014.06 중국-대만 2차 장관급 회담(타이베이)
12차	2015.05 시진핑, 주리룬(국민당) 주식과 국공회담(베이징).
최근	2015.11 시진핑-마잉지우, 첫 정상회담(싱가포르).

〈자료출처〉 대만 행정원 및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7/2015110701905.html 자료를 재정리.

과거 리덩후이와 천수이볜 집권 시기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로 인해 대만경제가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산업공동화 및 핵심기술의 유출, 그리고 대만 주체의식의 약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의 투자상한선을 두어 대중국 투자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마잉지우 정부는 이런 과거의 방식을 바꿔 2008년 8월에 '대중국 투자금액 상한 조정 및 심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여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

마잉지우 정부가 兩岸의 정치적 교류는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묶어두는 한편 경제협력은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兩岸關係를 차이완(Chiwan)¹¹⁾이라고 부르고

10) 김원근, 〈마잉지우 再選 이후 兩岸關係의 變化에 대한 展望〉, 《중국학논총》 제36집, 2012, 84-85쪽.

11) 차이완(Chiwan)이란 중국의 China와 대만의 Taiwan 의 합성어로 兩岸의 경제교

있다. 중국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도 兩岸關係에 개선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였으며, 마잉지우 정부 또한 兩岸교류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국공합작이라고 불리는 兩岸교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Ⅲ. 최근 兩岸 경제 교류의 특징

1. 정경분리

마잉지우 집권 시기 兩岸교류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한다면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입장인 대만은 당시 경제적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할 경우 대만인들의 반발심리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에 마잉지우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92 컨센서스’를 수용하여 ‘하나의 중국’을 대만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大三通’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즉 兩岸 간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당장 급진적인 통일이 어렵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대만과 경제적인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대만이 경제적 수혜를 받게 하고, 향후 최종 목표인 통일로 가는 포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했다. 무엇보다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수용한다면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CFA의 체결은 바로 이런 중국의 정치적 계산과 대만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협정이라 할 수 있다.

대만경제는 2000년 이후 8년 간 民進黨 천수이볜의 집권 하에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국내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존재했으며, 사실상 이로 인해 국민당의 마잉지우 정부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마잉지우 정부는 兩岸關係의 개선을 통해 대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중국과의 ECFA를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

2. 양안무역의 상호보완성

류와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12) 문명기, 〈兩岸경제협력기조협의를 통해 본 兩岸관계의 역사적 전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1집, 2012, 165-167쪽.

兩岸은 ECFA의 체결로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였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도 설치하여 兩岸간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兩岸간의 자유무역을 실시하였다. 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과 북미자유무역연합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무역 협정에 체결한 국가들은 자유무역에 임할 수 있으나, 무역협정을 체결 못한 나라들은 별도의 무역 규제 및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만 했다. 이런 절차상의 불편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兩岸간의 협력이 더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이유외에 무역의 상호 보완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에서 필요한 중고급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및 2차 산업과 관련된 제품은 대만에서 수입하고 대만은 중국의 절렴한 농수산물과 값싼 고부가치 제품의 원자재를 가까운 곳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가 간 무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상대국의 관세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역에서 관세는 수출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이다. 대만은 외교적인 고립으로 인해 대외무역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거대시장과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관세철폐라는 특권이 주어 진다면 상당한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만의 경제기반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대만은 무역에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기원항목이 되었다. 하지만 근래까지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간섭으로 인해 대외무역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이다.

마양지우 정권이전까지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본과 한국과 같은 경쟁국들에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다.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대만은 근소하게 한국보다 높은 점유율 보이고 있다가 2005년 이후에는 한국에게 추월당하여 우위를 빼앗겨 왔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兩岸 교류를 반드시 필요했다.

3.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

그 동안 兩岸은 같은 문화권과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하여 兩岸의 직·간접적이 무역이 이루어져 왔으나, 兩岸 모두 조정할 수 있는 법률과 규칙이 없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ECFA 체결로 兩岸은 경제협력의 법제화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대만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는 ECFA를 거부할 명분

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제화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만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 ECFA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에서 보면 ECFA는 분명 대만에 더 유리한 경제협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만측의 의사를 거의 다 수용해 주는 경제협력을 야당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만큼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분석해 보면 중국은 대만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兩岸 경협이라는 틀에 강제로 맞추어 중국이 의도하는 데로 끌고 가려는 중국의 전략에 대만이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 결국 國益을 위해 대의명분과 경협의 주도권을 중국당국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¹³⁾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이라는 대의 아래 블록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외교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협력에 동참하기 쉽지는 않았다. 환언하면 대만은 중국의 부분이라는 중국 측의 압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국가이기보다는 중국의 일부분으로 분류되어 왔다. 결국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장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독립적 활동은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경협은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IV. 차이잉원 집권과 兩岸 교류 전망

1. 신정부의 중국정책과 양안관계

民進黨 차이잉원 후보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만 최초 여성 총통으로 당선되었지만 차이잉원 정부의 앞날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빈부격차, 청년 실업문제, 부동산 안정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兩岸 간에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교류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신정부의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외 대외적으로는 기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최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선 차이잉원 당선자의 兩岸 정책을 중심으로 兩岸關係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차이잉원 당선자의 ‘현상 유지’ 정책¹⁴⁾과 중국이 주장하는 ‘92 컨센서스’

13) 왕완유, <동아시아지역 RTA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2010, 20-21쪽.

14) 차이잉원의 兩岸정책은 먼저 자유와 민주, 번영과 공의가 보장된 국가를 건설하고, 대만인 스스로 미래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 兩岸 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

의 수용문제로 인해 상호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兩岸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면 兩岸關係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차이잉윈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차이잉윈은 ‘92 컨센서스’와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兩岸關係에서 ‘현상 유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마잉지우 정부가 ‘92 컨센서스’의 ‘一中各表’를 수용하면서 兩岸關係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것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 마잉지우 정부가 지난 8년 간 중국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접촉을 유지하고, ‘시마회(習馬會)’까지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잉지우 정부가 중국이 요구하는 ‘92 컨센서스’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차이잉윈 당선인의 兩岸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기본적으로 대만 여론과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는데 반대한다’는 현상유지 兩岸정책과도 부합하며, ‘대만 독립’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경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차이잉윈 당선인의 兩岸정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어느 면에선 타협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원론적이며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차이잉윈 당선자가 ‘兩國論’의 입안에 간여했으며, ‘一邊一國論’ 발표 당시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이었기에 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92 컨센서스’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야만 兩岸의 교류와 평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차이잉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 ‘92 컨센서스’는 과거 국민당과 공산당이 1992년에 맺은 구두협약으로 내용면에서나 해석에 있어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커윈저(柯文哲) 타이베이 시장의 경우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民進黨과 차이잉윈 당선인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의하여 지난 ‘92 컨센서스’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화된 협정

하고 있다. 여기에서 ‘92 컨센서스’를 결정했던 홍콩회담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의 미래가 민주원칙과 보편적 민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董立文, 〈蔡英文的兩岸政策與未來評估〉, 《展望與探索》, 台北: 2016, 2-3쪽.
15) 范世平, 『習近平對臺政策與蔡英文之挑戰』 (台北: 博誌出版社, 2015), 258-262頁.

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귀추가 모여 지고 있다. ‘하나의 중국’문제를 원칙과 대전제로 접근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이잉원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은 그동안 진행됐던 兩岸의 경제 협력과 정치적 교류에 대해 재고하고 대만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兩岸關係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¹⁶⁾

2. 兩岸의 경제 협력 전망

중국이 뉴노멀(新常态) 국면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구조 조정과 성장률 둔화현상을 겪고 있고, 대만 또한 대만인의 兩岸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향후 兩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5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뉴노멀(新常态)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성장률은 예전에 못 미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는 과거 연 10%의 고속성장 시대에서 연 7~8% 안팎의 중·고속 성장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保7’(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무너지고 6.9%를 기록하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兩岸은 2010년 ECFA를 체결하고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된 2010년에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0.76%에 도달한 이후 2011년에는 3.8%, 2012년 2.062%, 2013년 2.23%, 2014년에는 3.74%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5년에는 결국 1%대의 성장률로 추락했다. 마잉지우는 중국과 전면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침체된 대만의 경제를 크게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연임에 성공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만의 한 잡지사(가운데 42.7%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2.1%는 현 상태가 유지되길 희망했고, 13.3%는 경제교류의 속도가 관리·조절되길 원하고 있었다. 마잉지우 정부가 중국과 전면적 경제협력시대를 열었지만 유권자들은 그 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상당 부분

16) 王正旭, 〈2016年我國大選後的兩岸關係發展平析〉, 《展望與探索》, 台北: 2016, 5쪽.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차이잉원 당선인은 비록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력의 성과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마잉지우 정부의 兩岸정책을 재검토하고 경제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등 마잉지우 집권 시기에 비해 兩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만인들은 兩岸 경제협력 과정에서 대만 경제의 對중국의존도가 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民進黨과 차이잉원 당선자도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대만의 對中國 경제의존도는 2000년 3.6%, 2005년 16.7%, 2010년 21.5%, 2015년 22.6%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만인들은 兩岸 경제교류 확대에 의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역흑자를 내는 것은 수용하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통합추세가 정치적 통합으로 연결되어 중국이 추구하는 ‘一國兩制’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대만 국립 정치대학 선거연구중심의 여론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만인들은 일관되게 중국이 주장하는 ‘一國兩制’ 통일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최근 홍콩의 ‘우산혁명’과 같은 민주화 시위에 대해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만인들의 ‘反中情緒’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대만의식’과 ‘대만주체성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들이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992년 17.6%에서 2015년 59%로 급증한 반면,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5.5%에서 2015년 3.3%로 급감했다.¹⁸⁾ 그러나 차이잉원과 民進黨이 대만주체의식을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통치에 활용할 경우 자칫하면 중국의 반발을 사서 兩岸關係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또한 이번 ‘쓰위 사건’을 통해 보듯이 지나치게 대만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자신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강요할 경우 대만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중국이 원하는 兩岸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홍콩에서도 갈수록 ‘一國兩制’에 반대하며 反중국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의 청년층과 민주세력이 중국에 대한 저항과

17) 정치대학 선거연구중심의 자료에 따르면 천수이볜 집권 초기인 2000년에 통일을 희망하는 입장은 19.4%, 현상유지를 바라는 입장은 48.7%, 독립을 바라는 입장은 14.7%였다. 이것이 2008년에는 각각 10.2%, 57.3%, 23.1%였고, 2014년에는 10.2%, 58.6%, 23.8%를 나타냈다.

18) 신중호, “대만 총통 선거 이후 兩岸관계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2016. 1), 2쪽.

반발이 거세질 경우 자칫하면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신정부의 대외환경과 양안관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兩岸관계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兩岸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문제도 향후 兩岸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각축과 대립 속에서 民進黨와 차이잉원이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지 주목된다.

차이잉원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포함한 미·일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兩岸關係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하여 대만문제를 자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며 兩岸關係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미국이 윌리엄 번스(W. Burns) 전 국무부 부장관을 특사 자격으로 대만에 급파하여 미국과 대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兩岸關係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부가 미국과 관계 강화를 시도할 경우 향후 미·중 관계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차이잉원 당선인은 주변국인 일본과의 우의를 강조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友日·南進)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친중 성향의 국민당 정권보다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民進黨 정권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차이잉원 총통 당선 직후 일본 외무상은 축하 인사와 함께 대만과 일본이 가치관을 공유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본정부는 대만의 TPP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 중재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다.¹⁹⁾

대만이 미·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와 인도와 같은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낮추고 자신들의 국제 활동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차이잉원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왜소화되는 대만의 위상을 끌어

19) 신중호,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2016. 1), 4-5쪽.

올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노력은 사실상 중국의 도움 없이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과의 지나친 협력강화가 오히려 兩岸 갈등과 중미 간 대립 국면을 유발할 수도 있다.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과 잘 소통하며 균형적이며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V. 결론

兩岸이 ECFA를 체결한 이후 상호 화해와 협력 기반이 조성된 것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CFA의 체결로 인하여 중국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兩岸의 통일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대만은 장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兩岸關係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마잉주 정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대만에 대해 양보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兩岸關係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ECFA를 체결 이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兩岸關係를 조정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잉주 정부의 兩岸 경제교류에 대한 전면적 개방에 대해 대만 내부의 경우 상당히 다른 여론과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3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만 사회 내부의 ‘해바라기 운동’과 같은 반발이 있었고, 그 이후 ‘一國兩制’ 통일에 반발한 홍콩의 우산혁명의 분위기가 대만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대만 사회 내부의 통합과 경제발전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작용한 반면 兩岸關係 이슈는 오히려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경우 ECFA의 경제적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만 긍정적 결과로 연결되었을 뿐 그 이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과 兩岸 경제교류의 성과가 대만 사회내부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작용한 것이다. 이는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국민당 정부가 몰락하고 새롭게 民進黨의 차이잉원이 등장한 배경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선거 기간 내내 民進黨은 ECFA 체결로 인해 대만 경제와 중국 경제에 종속되고 있으며, 결국 중국이 ECFA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경제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만을 중국화 할 것이며, ‘一國兩制’에 의한 통일을 궁극적으로 노골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民進黨과 차이잉원의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92 컨센서스’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상유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집권 초기 차이잉원이 당장 중국과 兩岸關係를 훼손하는 극단적인 대만의식이나 대만민족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新 남향정책²⁰⁾과 같은 국제적 연계를 통해 대만의 외교적 활로와 대만의 자주성을 강화하며, 중국과는 원칙을 강조하는 교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兩岸關係를 무시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중국이 반발하여 兩岸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경색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TPP와 RCEP 회원국들과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대만의 전략은 자칫 兩岸關係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될 때 대부분 회원국이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대만보다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대만 신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兩岸교류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점이다. 물론 마잉주 집권 시기에는 兩岸 정상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등 정치적 접촉도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차이잉원 정부의 경우 다시 정·경 분리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차이잉원 총통이 兩岸 대화 채널 기구의 책임자로 反 독립 성향의 宋楚瑜 친민당 주석을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兩岸關係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경제협력의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대만의 시각에서 兩岸간의 정치적인 경쟁과 정통성 때문에 경제 협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 또한 차이잉원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잉원이 ‘하나의 중국’ 문제와 ‘92 컨센서스’에 대해 부정하면서 대만의식을 강화하거나 대만 독립 문제를 강하게 드러낼 경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사회적인 교류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결국 兩岸關係를 상당히 경색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ECFA는 兩岸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60년간의 兩岸은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투쟁의 역사였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CF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兩岸關係를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중

20) 新 남향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차이잉원 정부의 경우 TPP와 RCEP 회원국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만 외교의 교두보로 삼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을 선거 기간 발표한 바 있다.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만 사회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대선을 통해 당선된 民進黨 차이잉원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兩岸 간 협력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兩岸 간 서로의 國益을 위해서는 선부른 관계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親中 성향이 강했던 국민당 시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기업과 기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기업이 兩岸關係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이승영·장양, 〈東南亞華商의 企業文化에 대한 研究〉,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0.
- 박정수, 〈마잉지우정부 출범 이후 兩岸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중국연구》, 2010.
- 왕완유, 〈동아시아지역 RTA에 대한 고찰〉, 대구: 영남대학교, 2010.
- 문명기, 〈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를 통해 본 양안관계의 역사적 전망〉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1집, 2012.
- 鄭다정, 박정수, 〈양안 관계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전략과 전망〉, 《중국학논총 제39집》, 2013.
- 김원근, 〈시진핑 체제의 출범 이후 양안관계에 대한 전망〉, 《중국학논총 44집》, 2014.
- 정성하, 〈TPP와 RCEP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구: 경북대학교, 2015.
- 신중호,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16.
- 지은주, 《또 다른 중화, 대만》, 서울: 김영사, 2015.
- 최강호, 《대만의 중국대륙정책》, 서울: 문사철, 2011.
- 허영섭, 《대만, 어디에 있는가》, 서울: 채륜, 2011.

- 陳鴻瑜, 《台灣的政治民主化》, 台北: 翰蘆出版社, 2000.
- 許介麟, 《李登輝與台灣政治》,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邵宗海, 《當代大陸政策》, 台北: 生智文化事業公司, 2003.
- 金相均, 〈中韓合資企業人力資源管理研究〉, 《人才管理》, 2004.
- 廉勇·李宝山, 〈中韓企業文化的交流与融合〉, 《廣東商學院學報》, 2004.
- 戴寶村, 《台灣政治史》, 台北: 五南圖書出版社, 2006.
- 張文生 主編, 『兩岸政治互信研究』, 北京: 九州出版社, 2011.
- 付瑞紅, 《美國東亞戰略的中國因素》,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蘇起·童振源 主編, 《兩岸關係的機遇與挑戰》, 台北: 五南出版社, 2013.
- 范世平, 《習近平對對政策與蔡英文之挑戰》, 新北: 博誌文化出版社, 2015.
- 童振源·李曉莊, 《面對: 民進黨菁英的兩岸未來》, 台北: 時報文化出版社, 2015.
- 黃年, 《蔡英文繞不繞得過中華民國》, 台北: 遠見天下文化出版社, 2015.
- Perlmutter, H. V., 《The Tortuous Evol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 1969.
- Tu Weiming,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Contemporary Taiwan」, in David Shambaugh, ed., Contemporary Taiw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98.

【中文提要】

最近世界集團化現象的深化使為相互利益而合作的多种形式的机制出現了。在保存原有的基本合作体制的同時又為本國可以謀求利益而選擇和新的國家合作。世界經濟集團化和地區主義的擴散形成了不可逆轉的時代。這樣的國際狀況下快速的適應, 作為東北亞經濟圈中心的中國強化了与周邊國家的經濟合作。提倡一國兩制的中國最近也逐漸強化了和台灣的合作。最近習近平主席和馬英九主席在新加坡商議了強化交流合作, 再次協商了過去92年來一直在協商的“一個中國”的原則。在此習近平主席強調了台灣和中國是一個親密的大家庭, 馬英九主席也對兩國持續發展提出了開通兩岸熱線的建議。并報道了首腦會談長遠化的協議。

兩岸關係更加親密使我國企業擔憂在中國的競爭力會下降。最近在中國政府的限制政策和中國國內勞務費的上升使我國企業的競爭力惡化的情況下，和韓國企業類似行業和企業形態的台灣企業得到特惠，我們的企業在中國國內的立足之地變窄是事實。在這個時期兩岸現象快速的理解分析，我認為研究我們應該如何應對是當下非常重要的事情。

在正文中首先對ECFA體制背景和過程的重要內容做了仔細的分析。其次對兩岸關係的現象和特征為基礎展望了兩岸關係的未來。最後通過結束語概要了摸索韓國和台灣共存方法的內容。

주제어: 중국, 차이잉원, 집권, 양안, 교류, 전망

중국,蔡英文,執政,兩岸,交流,展望

China, Tsai Ing-wen, seize power, Crosss-Strait, exchange, prospects

논문투고일: 2016년 07월 30일 논문심사일: 2016년 08월 18일~09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14일